

정보산업 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김 정 석*

차 례

- I. 서론
- II. 본론
 - 1. 인문학의 위기
 - 1) 인문학 위기의 객관적 체감 여부
 - 2) 인문학 범주에서의 위기
 - 3) 인문학의 위기와 교육
 - 2.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 1) 지식인과 산업사회의 권력
 - 2) 도구의 제공과 교육문제
 - 3) 소외에 대한 구체적 체감
 - 3. 위기에 대한 타당성의 확보와 대안의 모색
 - 1) 새로운 세대와 지식인의 갈등
 - 2) 위기 해결을 위한 전제
 - 3) 새로운 질서와 규범의 확립
 - 4. 정보산업 시대의 인문학 교육
 - 1) 교육자의 사고 전환
 - 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 3) 새로운 문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
- III. 결론

I. 서론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시작된 말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는 시작되었고 날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예전부터 시작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누구도 별다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개개인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 여실히 감지되는데,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구조 자체가 먼저 그 위기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대안의 실행들이 뒤따라야 한다. 국제경제적 지위향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회자되는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위기에 국한된 우려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이므로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막연한 대처보다는 그것이 정말 위기인지, 극복해야만 하는 당위의 문제인지들 먼저 따져보고, 진정 그것이 위기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듯 싶다. 인문학의 위기를 윤리적인 덕목이나 인간으로서의 가치체계의 붕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논의는 너무도 많았지만, 인문학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 논문은 그보다는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조명해 보려 한다. 그래서, 위기의식은 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인가, 과연 그 위기는 제반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보편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가, 보편적인 위기로 인정될 수 없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닌가, 그들이 느끼는 위기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이 느끼는 위기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따져본 연후에야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안을 실행에 옮길 사람들의 권위의식에 관한 문제와 실천적 대안으로써의 꾸준한 인적·물적 투자를 강조하고자 한다. 의식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으며, 눈앞의 결과물에만 급급해 투자에 망설이게 된다면 인문학의 위기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므로 별다른 효과나 대책도 없는 탁상공론만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인문학의 위기

1) 인문학 위기의 객관적 체감 여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들이 탄생하고, 더 이상 방대한 양의 서책을 뒤지거나 골머리를 앓아가며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그 어떤 것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완전하게 독립적일 수 없고, 모든 생산품은 질적인 측면과 무관하게 상품가치에 의해 존립여부가 좌우되며,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과 더불어 실재의 가치는 기호의 가치에 의해 대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광고를 통해 만들어진 환상적인 욕망은 실제로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들을 구입하게 만들고 있고, 찰나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장시간의 노력을 요하는 것들은 그 어느 것이건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지식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산, 활용이 지배적 산업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식에 대한 필요는 그것이 얼마나 상품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및 국제경쟁체제에 따른 효율성·시장성·실용성·사용가치성·전문성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인문학의 시대착오적 혹은 시대지체적 성격과 학문세계에서의 주변화로부터 연유한다.²⁾ 보다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속도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질적인 타락에 관한 측면보다는 존립 자체의 위협에 관계하는 것이다.

1) 최혜실, 『디지털시대의 문화 읽기』, 소명출판, 2001, 46면.

2) 조지형, 「인문학의 위기와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2001, 156면.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에 둔감한 인문학의 범주에는 무엇이 있는가? 카우프만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철학, 미술과 음악, 문학과 역사 연구의 여섯 가지 큰 분야들을 총괄적으로 인문학이라고³⁾ 규정한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그 여섯 가지 분야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종교와 미술, 그리고 음악은 나머지 분야와는 조금 다르다.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아직까지도 맹목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술과 음악은 상품경제의 논리 속에 잘 융해되어 있으면서도 고고한 영역을 지켜내고 있다. 종교는 신의 섭리에 따르면서도 현재의 체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옹호하고 행복한 삶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술과 음악은 상품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한 양질의 양념으로 사용되거나 그 자체가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나 미술, 그리고 음악이 위기 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질적인 문제에 연관이 될 것이지 존립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에 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존립의 위협을 느끼는 인문학이란 결국 철학, 문학, 역사연구라는 말이 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현대인들도 그 세 가지를 인문학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독 그 학문들이 두드러지는 까닭은 각각의 결과물들이 가시적이지 못하거나 실제 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는 이미지와 소비의 시대이다. 정보를 한 눈에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가 상품가치와 무관한 것이라면 찾아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들처럼 신속한 변화에의 적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적응력이란 다름 아닌 상품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결론은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쉽사리 그것을 실천에 옮겨 놓기는 쉽지 않다. 다만 방법론적인 수정이 있을 뿐, 그 자체를 상품화시켜

3) 윌터 카우프만, 이남재 이홍수 공역, 『인문학의 미래』, 미리내, 1998, 28면.

내면 어느새 인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학문은 직접적인 효용을 가지지 않고, 경제적인 이득과는 일단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수많은 학술적 연구들은 계속해서 더 이상 현대의 소비사회와 걸맞지 않는 원론적인 것만을 거론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뻔한 결론을 두고 벌이는 근심의 각축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는 인문학의 위기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체감 범위를 벗어나서는 객관적인 위기상황으로 정당화되기 힘들다. 정보화 시대를 새롭게 맞닥들인 세대가 아닌, 그것을 벌써부터 준비해왔거나 이미 그 시대의 도래 이후에 성장한 세대들은 좀처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자. 그들에게 무작정 인문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한들 쉽게 관심의 영역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는 이미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권력과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있을 것이다.

2) 인문학 범주에서의 위기

가난한 것은 게으름 탓이라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결과 위주의 무조건적 실천력이 강조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자유와 평등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생각되는 때는 그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현대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대 자본의 육성과 그를 통한 전체적 잉여생산의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소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와 권력이 함께 어우러져 탄생한 기형적

4) 조동일, 『인문학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93면.

메카니즘이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와 생산체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부도덕한 자본가와 정치인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정당화시켜낼 수 있는 부도덕한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바로 그들 자신이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경제적 권력은 곧 정치 권력과 맞닿아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 힘이 전체 사회구조의 아주 말단에까지 미침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문화적 장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이후, 또 하나 우리 사회를 급속도로 변화시킨 것이 있다면 정보산업의 발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과학은 끊임없는 진화를 이루어냈고, 인간의 삶을 더욱 더 편리하게 만들 수단들을 창조해냈고, 컴퓨터와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그 발전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연장선에 놓여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다만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류 문명의 진보라고만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자국 내에서의 소비와 생산만으로는 부족해진 자본가들은 국가와 국가 차원의 경제구도를 더욱 세밀화하고 확대시켜 글로벌 시대라는 허울좋은 경제예속 그물망을 창안해내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구도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기성 자본 위주의 집중과 동시에 타국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간섭 기제가 필요했고, 예전의 직접적인 교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모색하다 보니 부차적으로 정보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타의 과학문명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그 자체가 상품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정보통신 기술 자체가 자본력과 동일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전체를 하나의 매트릭스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자본이라는 이데올로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는 개개인 자체가 무시되고 국가나 사회의 모든 현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에 있다. 물론 정보산업의 덕분에 여러

가지 담론⁵⁾들이 활성화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좌파적 경향이 짙은 소수 부류의 입장도 힘을 발휘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담론의 활성화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해 내고 그것을 유지해 내는 권력기제들에 저항한다는 애초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권력기제에 협조를 하거나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여러 대상들을 전제하고, 검증과 끈질긴 관찰에 의해 일을 처리하며, 고백을 강요하는 질문과 심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내 이야기들을 가로질러 담론의 교환을 강하게 요구⁶⁾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권력은 그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현대의 권력과 지식은 별도로 고찰될 수가 없다. 지식 속에서 반드시 권력이 작동하고 있고, 권력은 그 작동을 위해 지식이라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다⁷⁾. 그 안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사용가치를 따지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인문학의 테제들은 권력의 작용에 반기를 들 수는 있어도 협조차원에서 맞물려 이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은 타학문에 비해 위기의식을 더

-
- 5) 프랑스어 ‘discours’(독일어 ‘Diskurs’)에 적합한 번역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원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함축성을 살려줄 수 있는 개념어가 우리 문화권에는 없으며, 둘째, 그 원어는 여러 상이한 학문분야(사회학·언어학·문학 등)에서 활용되면서 약간씩 다른 의미들을 획득했고, 셋째, 그 원어의 개념은 한 개인의 저술에서조차 새로운 내용과 연결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내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그 단어를 번역했는데, 지금까지 번역어로 사용된 단어들의 예를 들면, ‘언술 행위’, ‘언술’, ‘언설’, ‘술화’, ‘담화’, ‘담론’ 등이 있다. 이것들 중에서 ‘담론’이란 용어가 최근 전문영역에서는 물론이고 대중매체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문학이론연구회,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 문학과 지성사, 2002, 19면.
- 6)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나남출판, 1993, 62면.
- 7) 미셸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출판부, 2002, 136면.

민감하고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3) 인문학의 위기와 교육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여타의 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통계자료나 기술적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에서는 사실이나 결과 위주의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사고의 수준은 물론이려니와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마저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흔한 과제물 하나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글들이 대반이고, 혹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대로 논의를 연결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 편안함을 주고자 만들어진 한글의 의도가 무색할 정도인 것이다. 그나마 무언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는 다행이다. 남의 주장이나 소견을 그대로 차용해 짜깁기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짜깁기 자체도 서로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논리적인 맥락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식이 아닌 정보에 있다.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자료들을 손쉽게 구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고와 노력을 요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결과 위주의 지식검색은 지식을 습득하는 인식의 과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들의 정확성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인터넷 상의 자료는 모두가 정확할 것이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와 정보, 지식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질이 떨어지고 정확도마저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락 평준화된 지식수준들을 공유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된 진지한 사색은 필요 없어지게 되며 기존에 생산된 지식들을 누벼놓

은 듯한 값싼 의식들이 만연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처음부터 다시 완벽하게 고쳐놓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익숙해진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적은 양의 정보를 얻으라는 말은 현란한 속도에 길들여진 세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낯은 사고방식으로 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며, 어떻게 하든 학점만 그럭저럭 받으면 되고 인문적 지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고를 바로잡기엔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나마, 잘못된 비판적 태도나 정보들을 바로잡아 주는 방법은 일대일 방식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대해야 하는 교육 여건으로 인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하급 지식으로 평준화된 학생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해 주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의 선별법을 가르치고, 무분별한 자료의 차용과 신뢰가 가져오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1) 지식인과 산업사회의 권력

교육은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될 분야이다. 일단 본질적인 교육의 목적은 차치하고, 현대의 교육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할 수 있는 성원을 생산해내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지식인⁸⁾들이다. 결과만을 놓고 말하자면, 사회가 변하면 교육도 변화해

8) '지식인', '지성인', '학자', '연구자' 등 호칭에 따라 다소간 개념 정의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지성인이라 함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파악되며 학문의 현장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칭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라 함은 경제행위

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는 속도와 양을 교육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학문이 사회를 변화시키던 시절은 가고 기술적인 변화가 학문을 이끌게 되면서 위기는 시작되었고, 때 시기마다 위기라는 단언이 내려졌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야에 묻혀 살며 모든 것을 달관하고 초연한 성인의 모습은 이미 낡은 모습이 된지 오래다. 현대의 공인된 지식인이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정통한 지지 라인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보증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지식 또한 포괄적인 것이 아닌 특정분야에 한정된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지식인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보다 먼저 권위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위가 먼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박한 지식은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개 개인이 소유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형편 탓에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학자들의 지식생산은 일정한 학문적 전제를 출발점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학문적 전제야말로 일상적인 권력의 효과를 은폐하는 이른바 상징적 폭력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것이다⁹⁾. 물론, 학문을 하는 이유가 다만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와 무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만족은 경제력이 뒷받침 될 때야만 가능하고, 또 먹고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경제력이 따라준다고 하면 굳이 머리 아픈 학문에 관심을 가질 사람도 드물다. 결국,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로 학문에 적을 두고서 그것이 자신의 경제생활과 맞물려 일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미 기존의 체제나 제도에 포함되어

가 배제된 학문에의 개인적 성향이 강조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자라 함은 학문을 떠난 불특정 다수의 기술적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호칭이기 때문에 굳이 지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로 한다.

9)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391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지배적 지위에 있는 개인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다.¹⁰⁾ 왜냐하면 권위나 권력은 제도나 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기존의 권위체제 안에 속해 있는 지식인들과 그렇지 못한 지식인들의 연구결과와 투자된 노력은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다. 동일한 결과물을 놓고도 그들은 투자할 수 있는 연구시간의 확보능력에서 차이를 갖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안에 있느냐와 밖에 있느냐의 차이가 실제적인 연구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다. 체제 안으로 들어가려는 입장과 그 체제 안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 느끼는 위기의 체감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체제 안에 정착한 지식인들은 첨예한 생존의 문제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위기를 단순히 외부에서 발생된 것으로 다룰 위험이 있고, 더구나 다른 학문에 비해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인문학의 경우에는 원론적인 문제에 치중하거나, 그것을 타개할 일련의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다만 희망사항을 거론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해, 기존의 권위체제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다 긍정적인가 하면 그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체제 안에 들어가야 하고, 체제 안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그 체제와 동화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여유가 보다 많은 연구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제 타결을 위한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는 일 역시 기본적으로 연구를 위한 안정된 생활이 얼마만큼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자신의 임금을 공개하면서 연구성과와 생계와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면서 인문학자로서 갖게 되는 생계문제의 고민을 털어놓은 글¹¹⁾도 있

10)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67면.

다. 교수의 직책에서도 그러한 실정이라면 여타의 정규적인 직책도 갖지 못한 연구자라면 더 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2) 도구의 제공과 교육문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질과 양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교육자에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전달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전달자의 교수능력은 개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를 갖음과 동시에, 소유한 지식의 깊이와 양이 전적으로 교수능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이다. 아무리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달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좀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나름대로의 교수법을 만들어 내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전달되는 지식을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보다 정확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운반되는 내용물에 문제가 있다.

지금의 대학에서 수신자로서의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그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것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 안정된 경제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이다. 이미 틀이 갖추어진 체제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진리의 문제를 판단하는데에는 권력이 관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실은 수합하여 기록하는 자에게서만 완성되¹¹⁾는 것이다. 권력의 입장에서 과연 기존의 체

11) 조동일, 『대학망국의 시대에서 대학구국의 시대로』,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65-205면

12) 미셸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 나남출판, 1993, 84면.

제에 적합한 수단을 재생산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해진 체제에 복속되기 위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은 더 이상 참된 인간의 양성이란 본질적인 교육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권력은 근본적으로 대학이 일정한 연령에 이른 한 계층을 유속시키고 감시하는 지역일 따름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선발만 하게 할 따름이다.¹³⁾ 따라서 학생들은 더 이상 진리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좀더 쉽고 편안하게 기득권 계층에 스며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학을 선택할 뿐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시로 진화를 거듭하고 변형되는 디지털 회로 속에 잘 연결될 수 있는 속도와 유연성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평범한 인간의 전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것이 아무리 진실되고 올바른 학문일지라도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적응이 더딘 것이라면 수요자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거부로 말미암아 존재의 위기감이 커지는 것도 필연적인 결과이다. 유용하지 않거나 낡은 부품들은 거듭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하거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드는 프로그램들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소비성의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그 존재를 유지하려 한다. 다수의 평범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평범한 자료들은 점점 범람을 하게 되고, 사용가치는 다만 교환가치에 다름 아닌 것이 되며, 더 많은 것이 평범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까지 이른다. 현대의 모든 분야가 키취¹⁴⁾에 전념하게 되어 양적인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실체에 관한 더 많은 것 — 더 많은 사실, 정확성, 지시, 정보, 이미지 — 을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애쓰는 우리 사회

13)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물라시옹』, 민음사, 1997, 235면.

14)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2002, 154-157면 참고.

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실제의 의미와 실제의 차원을 상실하게 된¹⁵⁾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진리 자체의 교육에만 열중하는 것보다 먼저 쓸모없는 정보들의 무차별적인 제공 속에서 어떤 것이 보다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능력을 심어주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3) 소외에 대한 구체적 체감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일수록 실제적인 육체노동을 통한 생산보다 지식산업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 고른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짐으로 인해 전문화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고, 그만큼 자신이 가진 하나의 범주를 벗어나 문제를 바라보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정보산업 사회에서 생산된 지식은 사용가치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될 뿐이며, 아무리 양질의 지식이라 하여도 사용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지식은 점차로 그 입지를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다. 일개 전문인에 불과한 지식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존재 기반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곧 생존의 문제와 결부된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행위는 공적·사적인 세계가 매우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⁶⁾. 사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비단 경제 이데올로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존재이유를 상실한 모든 것들은 현대의 복잡한 권력망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소외는 곧바로 대립과 투쟁을 양산해내기에 이른다. 앞서 말했듯이 변화의 속도와 사용가치의 차원에서 여타의 다른 학문들에 비해 인문학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갖는 위기감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 위기는 곧 제반의

15) 배영달 편저, 『예술의 음모』, 백의, 2000, 101면.

16) 에드워드 W. 사이드, 전신욱·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썬, 1996, 45면.

권력기체에 의한 소외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외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 장이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는 인문학을 떠난 전체적인 교육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대학교육에 한정했을 경우 취업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기 어려운 학문에 축소적용하자면 영어를 제외한 여타의 인문학은 그 체감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문화체제 안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종전의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적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예를 표명하는 것은 다만 교육자와 학생이라는 위계질서로부터 나오는 통제권에 대한 막연하고 자발적인 인정일 따름이다. 하지만, 그 자발적인 인정도 그들이 가진 가치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 회수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짐과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은 교육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화체제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되고, 결국 위기의 체감은 서로 다른 두 문화체제의 마찰로 인한 권위의 상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위기에 대한 타당성의 확보와 대안의 모색

1) 새로운 세대와 지식인의 갈등

정보산업 사회의 자양분을 통해 길러진 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앞 세대들에 대해 이해의 범주가 다르기 마련이다. 거기서 발생하는 대립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새로운 세대의 무례함을 탓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개인의 행동방식을 다만 주체의 성향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사회권력이 객관화되는 것에 대한 해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주체의 자유와 선택이 결정적인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해명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체계는 물질적인

기반을 전제로 한 취향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며, 계급을 막론한 계층 간의 질서까지도 물질적인 여건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배의 관계가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개인간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권력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¹⁷⁾는 말이다. 제도화 역시 각 주체들간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는 거부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합의와 동의를 표명하게 되는 개인의 정서적 선택의 문제는 결코 경제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로운 주체 역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지식의 힘과의 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⁸⁾ 이미 갖추어진 구조 안에서 각 개인의 행위나 가치판단은 사회적 성향체계에 의해 형성되며, 권력에 의한 문화적 의식이나 관습의 생산은 개개인의 주체적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¹⁹⁾

현대 사회에서 권력의 틀을 떠나 개인적인 행위에만 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생존을 위해선 경제행위에 참여해야만 하고 경제행위에서의 참여는 반드시 사회적 틀에 부여된 권력관계에 복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 개인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직업에만 충실히 전념한다고 해도 보다 큰 범주 내에서 그것은 저절로 권력을 지지하거나 봉사하는 일이 되버리는 것이다. 지식의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단 지식은 보다 더 상징적인 체계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현대사회가 지지하고 있는 지식의

17)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95면.

18) 질 들뢰즈, 권영숙·조형근 역, 『들뢰즈의 푸코』, 1999, 118면.

19) “실제로 객관적 미래는 주체에 의해 의식적으로 추구된 목적이 아닐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행동의 객관적 원리를 구성할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 미래가 주체의 현재 상황과 그의 아비투스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데, 아비투스는 주체에 내면화된 객관성이고, 어떤 상황의 영향 하에 그 상황 속에서 획득된 지속적 성향인 것이다.” —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2002, 128면.

효율성 문제는 기존의 체제나 권력에 대립하는 이론적 테마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상품지배 현상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한 지식인들은 보다 높은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게 되며, 일단의 육체노동자들보다도 많은 상징적 권력을 가지게 되어 일련의 폭력성을 갖게 된다. 이때의 폭력성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결국, 지식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지식의 논리 안에 자리잡은 지배의 논리가 감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²⁰⁾이다.

이러한 지식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낀다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학문의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다소 일치하는 경향을 지닐 수는 있지만, 그 내적인 근거는 전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발생한다. 무례하고 버릇없고 생각 없어 보이는 세대에 대한 반감은 대체로 자신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함에서 비롯되거나 그들이 자신의 틀에 맞추어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기인한다. 그에 대한 비판이 한결같이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에 맞추어진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자신 스스로가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고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존의 권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지식인으로서 스스로가 기술적 도구의 생산에 종사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학문의 낙락함을 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다른 학문을 전문으로 다루면서도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는 지식인들은 생존의 문제와는 무관한 정서적인 반감이나 무력감에서 위기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인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인들이 느끼는 위기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들에게는 정서적인 불일치나 반감 자체가 곧바로 그들의 학문에 관련된 것이며, 끊임없이 타결

20)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30면.

하고 개선해야만 하는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지식인들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당면과제이지만, 그 외의 범주에 있는 지식인들은 본질적인 인문학적 교육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컫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모든 지식인에 걸쳐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객관적 현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위기 해결을 위한 전제

객관적 도덕규범과 권위로 여겨지던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권위의 회복과 유지이든 생존의 보장이든 위기의 해결을 위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할 때, 그러한 대안의 모색들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안의 모색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위기의 해결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해결인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먼저 위기를 느끼는 지식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자. 첫째는 인문학도로서의 지식인이며, 둘째는 비인문학도로서의 지식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위기가 대자적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의 본질은 권력체제로부터의 소외와 권위의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앞서 말한 바 있듯 지식인들의 위기인 것이지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미래의 경제행위 담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대안의 모색은 위기를 체감토록 만드는 타자의 반응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자의 반응에 맞추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사용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의 기법을 도용해 인문학을 다시 풀어내려는 시도 역시 ‘문화 따라잡기’ 내지는 ‘흥내내기’에 그치고 있다. 걸모양만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내용 자체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문학 스스로의 반성과 변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보사회라고 해도 철학, 사학, 문학 등의 기존 학문분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인문학의 연구목표와 실천방식을 당장 바꾸거나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보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연구의 환경과 도구들을 이용하여 기존의 인문학 연구의 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리 인문학 연구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해도 정보사회의 시대정신, 즉 공리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상업주의적인 원칙들이 그러한 전통적 연구의 결과인 인문학적 지식에 대하여 내리는 가치평하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²¹⁾는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결국 해결안이 없는 이론적 외침에 불과한 현실이 그러한 태도를 더욱 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불어, 근본적인 인문학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데 그치는 것도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중국 내에서의 인문정신의 상실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왕몽은 “인문정신은 결코 단일하고 가치 표준을 갖추는 것이 아니므로 인문정신을 신성화, 절대화하는 것은 다른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조를 절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인문정신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다양한 문학기향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²²⁾고 주장한다. 이는 비단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비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타당성과 대안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현대 사회의 정확한 분석과 인문학 자체의 공적, 객관적 가치에 대한 증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1) 박찬길, 「정보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2001, 43-44면.

22) 백원담 편역, 『인문학의 위기』, 푸른 숲, 1999, 301면.

3) 새로운 질서와 규범의 확립

전통과 새로운 문화간의 마찰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변화가 급진적인 것일수록 기존의 전통에 대해 그것은 위협세력이 된다. 변화 속에서 낡은 것은 현재의 문화에 걸맞은 모습으로 재구성되기 마련이다.²³⁾ 다시 말해서, 현재의 행위양식은 과거의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은 꾸준한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식론적 단절’을 통해서 형성된다. 즉, 과학은 낱알이 무언가 새로운 발견에 의해 거둬 변화를 하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물질적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이데올로기는 주체의 행위양식과 관련되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앞서 가며 그것이 또한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는 추상적 상부구조를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과학의 발전은 정신적인 지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편에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지식은 물질 토대를 구축하는데 작용하느냐 상부구조에서 작용하느냐가 판가름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는 보다 더 추상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되는데, 권력은 구체적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력은 어떤 대상을 지식을 통해 배제하고 억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인을 구성하고 학문적 탐구 대상들을 생산하며 주체를 만들어낸다.²⁴⁾ 자율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식은 권력에 봉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신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의 경우에는 물질 토대 자체를 변형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23) 부르디외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위양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속성들을 일컬어 *아비투스(habitus)*라고 칭한다. 이것은 사회구조와 행위의 이중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프로이트나 사르트르의 주체중심적인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4) 윤효녕 외 3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70면.

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회를 변화시킬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규범 자체를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어도 자체적으로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탄생시킬 수는 없다는 말이 된다.

학문간의 입장이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지식인들의 염려는 세계적인 동향이다. 만일 국가와 국가간의 사회·문화·경제적 교류가 오늘날 소위 지구화라고 일컫는 커다란 범위를 가지지 않았고, 각 나라가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문제점만을 해결해내면 그만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특정한 어느 한 사회에만 국한된 지엽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필연적인 귀결로서의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려 들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과학에서처럼 무언가의 오류를 대신할 만한 다른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기 힘든 인문학이 만들어내는 대안은 실천력을 상실한 막막한 논의에 불과하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결국 인문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을 찾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주어진 현실에 얼마나 근거를 두고 있느냐와 관련을 맺는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단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적응과 변화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단기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은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입지를 지켜내려는 막연한 절충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4. 정보산업 시대의 인문학 교육

1) 교육자의 사고 전환

앞서 거론했듯이 ‘인문학의 위기’는 한편으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필자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실감하게 되는 이 현실은 어쩔거나 인문학도들의 발등의 불인 셈이다. 그런데 굳이 그 현상들을 위기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안절부절못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못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은 인문학의 정적인 특성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보화 시대의 젊은 인력들은 속도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최신 기종에 비해 사양이 조금 떨어져 부팅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게 느껴진다면 가차없이 그 컴퓨터는 고물 취급을 받고 그 기다리는 시간 수십 초(분 단위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은 정말 고물에 속한다)를 참지 못한다. 그리고 정보의 교환이나 수집에서도 전송속도의 중요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하다 못해 자신이 얻어야 할 정보의 양이 큰 관계로 다운로드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진득하니 그 일에만 열중을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음악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동시에 다른 자료들을 검색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거나 여타의 동시작업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는 것이다. 이런 세대에게 사색을 필요로 하는 장문의 인문학적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나간다는 것은 애초에 흥미와는 관계가 먼 일이다.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빠른 것에 흥미를 느끼는 세대에겐 인문학 자체가 장시간의 로딩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다지 재미없는 낡은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요즘 애들은 말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식의 푸념이나 질책을 하는 것은 옛날엔 그러했으니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식의 강요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당위성의 문제가 사용가치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세대들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게 인문학적 소양의 부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다. 그런 태도는 바로 고리타분한 권위의 남발로 비치게 되면서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결과의 수습을 제쳐둔 책임추궁식의 논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즉, 변화된 사회가 따라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변화된 사회가 인문학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흥미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흥미 위주의 교육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간에 현재의 인문학의 위기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문학 자체를 흥미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려 놓게 되면 점진적으로 여타의 권유나 강제적인 부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구적 귀족주의는 사상가와 일상적 생존의 사소한 근심에 빠진 서민 사이에 본질상의 차이를 만든다.²⁵⁾ 당장의 취업전쟁 앞에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느끼는 괴리감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고불변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인문학의 권위를 포기하게 될지라도 자체적인 변화와 수정을 꾀한 연후에야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왜 인문학을 하냐는 질문에 별다른 깊은 생각 없이 곧바로 재미있다는 대답을 얻을 수 있으면 훌륭한 시작이 아닌가.

2)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인문학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을 재미있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별다른 효과를 얻어내기가 힘들다. 새로운 세대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이다. 실제로 학습의 현장에서 멀티미디어 장비는 그 사용

25) 피에르 부르디외, 김웅권 역,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2001, 44면.

빈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 없이는 학습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도 많다. 시각적인 이미지에 보다 의존을 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같은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활자화된 자료보다는 각종 미디어에 의해 이미지화된 자료가 훨씬 더 깊고 오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학습 내용을 아무리 이미지와 연관시키려고 해도 작업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커뮤니티의 구성을 통해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곳까지 학습의 장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도 있다. 블로깅(blogging)²⁶⁾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에게 스스로가 학습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재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구상해보는 것도 좋은 활용방안 중의 하나이다.

물론 멀티미디어의 활용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를 표방한 학교라고 할지라도 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소규모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으며 활용도 면에서도 인문학보다는 여타의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문학을 가르치는데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문화가 변하는데 인문학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변화된 세계의 흐름에 걸맞지 않거나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고인 학문은 점차로 진리와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발상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26) Blog는 Web Log의 준말이다. Blogger란 블로그를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Blog를 하는 도구를 말하기도 하며 Blogging이란 블로그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블로그는 여타의 직접 태그를 입력해 웹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컴맹이라 하더라도 기록을 쉽게 남기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글들이나 사상 등이 자동으로 공개되어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도구이자 문화이다.

이다.

인간의 행위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로 정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순간적인 차익을 노린 단기성 상품에의 투자보다 질 좋은 인력의 수용을 통한 보다 큰 이윤의 창출을 위해 인성에의 투자에 더 비중을 두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멀티미디어 시대를 뛰어넘어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든 적용될 진정한 고용주의 모습일 것이다. 이윤의 창출은 단순히 기계적인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작업 자체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경영이나 관리문제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인 사용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3) 새로운 문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하였다고 하여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다만 예전에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던 교류가 이제는 첨단 의 오프라를 갖춘 각각의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인문학이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아직은 기계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완벽히 타인과 동떨어져 혼자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이 사라져버리진 않은 것이다.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커뮤니티 활동이다. 그들은 같은 의견이나 공동의 목표를 교환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아주 작은 친목모임에서부터 정치적인 의견표명까지 그 종류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커뮤니티의 특징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데 있다. 자발적인 가

입 없이는 커뮤니티 활동이 불가능하며, 그 안에서 어떠한 정보와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딱히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것이다. 어떤 분야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요 없이도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동질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게 된다면 대립 세력을 포함하고도 유지가 되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의 모임과는 달리 그 커뮤니티는 제대로 유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안티세력의 커뮤니티가 생겨나거나 커뮤니티 자체가 붕괴되거나 다른 커뮤니티로의 이전이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문제에 이러한 커뮤니티 문화를 적용시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같은 강의를 듣는다는 것에서 학생들은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들이 구성한 커뮤니티와는 달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빠져나갈 염려는 없으며, 혹시라도 안티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그것마저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여 토론의 장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의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예전에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각각의 강의마다 커뮤니티를 구성해 자발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해 놓게 된다면 보다 손쉽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심한 탓에 질문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사람도 온라인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커뮤니티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웹을 잘 다루지 못하는 교육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잠깐 언급했던 블로그를 통해 그 불편함을 절감할 수도 있으며, 학생 가운데 운영자를 한 명 선발해 전반적인 정돈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활용력이 뛰어난 교육자들은 커뮤니티의 구성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방법도 있다.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 측에서 각각 약 5Mb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좋을 것이다. 학

습 자체를 웹상으로 옮겨놓는 일은 물론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콘텐츠의 기능이 그다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인문학의 위기라는 보편적인 공감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맞춤법은 물론이며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표현이나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실제로 인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느끼는 위기가 갖는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염려만 하고 문제가 알아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시대도 아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단순명제처럼 인식할 수도 없는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위기를 타결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진다고 해도 마땅히 이렇다할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일정한 권위를 획득한 상태에서 낡은 방식에 젖어있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저 예전 같지 않은 세대에 대한 한탄만을 늘어놓거나, 스스로가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간다고 보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방식에 맞춰주기만을 바란다거나, 현재 자신의 위치를 그럭저럭 지켜내다가 떠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가 변하기 전에 세계가 각성해주길 바란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주 조그만 생각의 전환이다.

이제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모르는 세대를 각성시키는 것이 문제

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문학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에만 급급한 것은 사건의 수습은 될 수 있어도 완전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듯, 이미 자명한 사실이지만 경제 위주의 국내의 정세나 학벌 위주의 사회, 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운운하면서 다만 수정 차원에서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출발점에서 이 논문은 먼저 인문학의 위기가 진정 위기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았고, 그것을 상품 경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의 권력과 연관지어 보았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권력기제 하에서의 지식인들의 권위의식에 대한 반성을 거론했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인문학의 흥미증진에 대해 거론했다.

물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위기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 위기의 발생 원인이나 현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반성이 먼저 있는 연후에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찬길, 「정보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2001.
 배영달 편저, 『예술의 음모』, 백의, 2000.
 백원담 편역, 『인문학의 위기』, 푸른 숲, 1999.
 윤효녕 외 3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조동일, 「대학망국의 시대에서 대학구국의 시대로」,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조동일, 『인문학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조지형, 「인문학의 위기와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평론, 2001.
- 최혜실, 『디지털시대의 문화 읽기』, 소명출판, 2001.
-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 에드워드 W. 사이드, 전신옥·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썬, 1996.
- 질 들뢰즈, 권영숙·조형근 역, 『들뢰즈의 푸코』, 1999.
-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1997.
-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2002.
- 미셸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1권 얽의 의지』, 나남출판, 1993.
- 미셸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서강대출판부, 2002.
- 피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 피에르 부르디외, 김웅권 역,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2001.
-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2002.
- 월터 카우프만, 이남재 이홍수 공역, 『인문학의 미래』, 미리내, 1998.

【Abstract】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crisis of human sciences

Kim, Jung-Suk

The crisis of human sciences didn't appear suddenly today. It started a long time ago and its hollow has deepened until now. I am pretty irritated by the fact that there is no solution for the existing crisis. Although many people know the fact, poor analyses in the social structure cause poor alternative proposals.

First of all, what has to be done for human sciences is to study social and structural analysis to get some appropriate alternatives. However, we are hesitating to invest in studying i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tudy doesn't have an enormous impact on financial status of our country like the profits from the economic process.

We must take steps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that the crisis has been a problem not only for academic world but for ordinary people as well. Many people had dealt with the crisis of human sciences as an erosion of traditional values, but it is just a part of the problems. Now we need the reflection on the whole problems in the general society under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There are many theses about the crisis of cultural sciences, but they are only based on moral values or virtues of human nature. This thesis will give better lights on the structural aspect of the crisis. That is to say, does the crisis of human sciences belong to a special class? Could it be a something universal? Why do they feel the crisis?, and then what is the identity of that crisis? and so on. There are so many problems in our age and a short-sighted policy or a short-sighted alternative plan is not congenial to our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we need a long investment in both materials and human beings. It's about the time to implement things needed. We don't have time for a number of desk theories. Time ticks by so fast. A theory without practice will serve for nothing. Therefore, now we must carry those theories into practice from point to point.

Key words : Crisis, Human sciences, Social and structural analysis, Information technology, Alternative, Practice